

공주 마곡사 명부전 불상 연구

최선일(崔宣一)

I. 머리말

II. 마곡사 명부전 불상의 형식적 특징

1. 목조지장보살좌상
2. 석조무독귀왕과 도명존자 및 석조시왕상
3. 권속

III. 마곡사 명부전 불상 관련 문헌 검토

1. 「忠淸南道公州郡泰華山麻谷寺冥府殿創建記」
2. 조성발원문

IV. 마곡사 명부전 불상의 조성 시기와 조각승

1. 목조지장보살좌상
2. 석조시왕상
3. 조각승 性日

V. 맺음말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주요 논저:

「조선후기 조각승 색난과 그 계보」, 『미술사연구』14(2000); 「17세기 조각승 수연의 활동과 불상 연구」, 『동악미술사학』8(2007);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教彫塑』(서울: 양사재, 2007);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61(2009); 『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서울: 경인문화사, 2011); 「배천 강서사 조성 지장보살과 조각승 영철」, 『선문화연구』13(2012); 「근대 불교조각의 흐름」, 『동악미술사학』24(2018);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I - III(서울: 양사재, 2018); 『조선후기 조각승 열전』(서울: 양사재, 2018);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1-3(구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2018-2020) 등

본 논문은 공주 마곡사 명부전에 봉안된 불상에 관한 문헌 검토와 양식적인 접근을 통하여 목조 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의 제작 시기 및 조각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명부전 내에는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석조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서 있고, 벽면을 따라 시왕상 및 권속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 불상들은 1930년대 후반에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청양 정혜사에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및 시왕상 등은 임실 신흥사에서, 시왕도는 논산 정토사에서 옮겨온 것이다.

이제까지 마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석조시왕상 조성 시기인 1677년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 신체 비례, 착의법 등을 살펴보면,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守衍이나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1620~30년대 만든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의 두 번째 주름이 수직으로 늘어지고 끝자락이 하트 모양으로 마무리된 점과 그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낮게 펼쳐진 옷주름 처리 방식은 수연이 제작한 서천 봉서사 불상(1619년)이나 익산 송림사 불상(1634년, 옥구 보천사 조성)과 유사하다.

석조시왕상과 권속 등은 1677년에 조각승 性日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것을 조성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성일이 수화승으로 만든 유일한 불상이고, 같이 제작에 참여한 작가들의 활동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어야 구체적인 조각승의 계보가 밝혀질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성일이 불상 제작과 중수에 참여한 활동을 살펴보면, 慧熙 계보 또는 雲惠(雲慧)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여 두 조각승 집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곡사 시왕상은 호남이나 영서 지역에서 주로 제작되는 흙이나 나무가 아니라 돌로 제작되었으며, 영남에서 유행한 시왕상의 형태나 착의법 등과 유사하여 호남보다 영남에서 주로 활동한 조각승들의 작품으로 보인다.

앞으로 충남 지역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성 시기와 작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17세기 후반 영남 지역 석조불상과의 비교를 통해 호남에서 제작된 석조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조각승과 활동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주제어: 조선 후기, 마곡사, 명부전, 조각승, 성일

공주 마곡사 명부전 불상 연구

최선일(崔宣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I. 머리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태화산 자락에 위치한 마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本寺로, 2018년 6월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마곡사는 삼국시대 창건되어 1172년에 普照國師 知訥이 제자 守愚와 함께 왕명을 받아 중창하였지만,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 사찰의 불사 현황을 알 수 있는 문헌이 남아있지 않다. 마곡사는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기간에 대부분 파괴된 후, 1651년에 覺淳 등이 대적광전, 대웅전, 영산전 등을 중수하였다.¹ 1782년에 다시 화재로 대웅전과 영산전을 제외한 1,051여 칸의 건물이 소실되어 1788년에 대광보전이 재건된 후, 1813년에 중건되었다. 1842년에 대웅전과 영산전이 改修되고, 1852년에 응진전이 중수되었다. 마곡사는 1902년에 마련된 「대한사찰령」에 의해 전국 16개 中法山 사찰의 하나로 지정되고, 30本山(이후 31본산으로 늘어남)의 하나로, 충청 지역의 100여 사찰을 관장하는 본산이 된 후, 1910년 6월에 천왕문과 해탈문이 중수되고, 1937년 3월에 명부전이 준공되었다.²

이와 같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마곡사는 極樂橋를 사이에 두고 북원에 大雄寶殿(보물 제801호), 大光寶殿(보물 제802호), 靈山殿(보물 제800호) 등과 남원에 應眞殿, 冥府殿(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4호), 四天王門(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2호)과 解脫門(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6호) 등이 있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에서 주최한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마곡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전통사찰총서 12-대전·충남의 전통사찰 I」(서울: 사찰문화연구원, 1999), pp.87-110.

2 1939년에 명부전이 건립되었다는 주장도 있다(한상길·홍대환, 『태화산 마곡사』(서울: 활불교문화단, 2012), pp.23-24.).

다.³ 이와 같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각 내에 조선시대에 제작된 많은 불상이 봉안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마곡사 불상에 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⁴ 특히 명부전은 1939년에 이르러 주지 만공스님이 불상과 불화를 안치한 전각으로, 내부에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석조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서 있고, 벽면을 따라 시왕상 및 권속이 배치되어 있다. 명부전 전각 창건과 관련된 당시 불사 기록인 『忠淸南道公州郡泰華山麻谷寺冥府殿創建記』에는 명부전 중건 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 불화 등을 다른 사찰에서 이운한 과정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은 동일시기 같은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명부전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 등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명부전과 불상 관련 문헌을 검토한 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을 만든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마곡사 명부전 불상이 17세기 전반과 후반을 대표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밝혀보겠다.

II. 마곡사 명부전 불상의 형식적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부전은 南院의 매화당 북쪽에 1936년 8월 16일에 착공하여 1937년에 3월 15일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전각에 봉안할 불상과 불화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지장존상,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및 시왕상, 시왕도 등을 다른 사찰에서 이운한 후, 1939년에 건물을 완성하였다.⁵ 조선 후기 중창된 대부분 사찰에서 대웅전, 영산전 등과 함께 명부전을 건립하는 것과 달리 마곡사에는 명부전 건립을 전하는 문헌을 찾을 수 없다.⁶

3 박언근, 「마곡사의 가람 배경」, 『마곡사실측조사보고서』(과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4 기존 간행된 단행본이나 논문 등에 마곡사 불교조각에 관한 제작 시기와 작가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마곡사 괘불을 전시하면서 발행한 테마전 도록에 마곡사 불교조각 논고가 실려 있으나, 명부전 불상은 외부에서 옮겨온 客佛이라 논외로 하고 있다. 허형욱, 「기록과 함께 보는 마곡사의 불교조각」,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 보물 제1260호 공주 마곡사 괘불』(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9), pp.43-54.

5 『忠淸南道公州郡泰華山麻谷寺冥府殿創建記』(懸板).

6 임진왜란 이전 마곡사 전각은 『泰華山麻谷寺事蹟立案』에 “시내 북쪽에 먼저 지은 건물로는 大雄殿·十王羅漢殿·眞如門·泛鐘樓·香爐殿, 좌우의 僧堂과 禪堂, 동서의 上室, 藥師殿·西殿·聖·臺·月波堂·攄持寮, 동쪽에 세운 별도의 마굿간[東別馬廄], 방앗간[春間]과 측간[厠室] 등이 있으니, 그 터는 합하여 2結 69ト1束이다. 시내 남쪽에 나중에 지은 건물로는 靈山殿·興聖樓·解脫門·天王門·影子殿·香爐殿·齋廚室·月明堂·梅花堂·落花堂·白雲堂, 안팎의 南殿, 國師堂·袈裟堂·萬景臺·明寂菴·白蓮菴·隱寂菴·靈隱菴·凝香閣 등이 있는데…”라고 적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책(2019), p.81(탈초 및 번역 홍선). 임진왜란 이후 전각에 관해서는 1785년 화재 이후에 대광보전 중건과 관련된 현판인 『忠淸右道公州判地西嶺泰華山麻谷寺大光寶殿重創記』에 “법전이 셋인데 둘은 북쪽에 앉아 남향하고 있으며, 각각 大雄殿과 大光寶殿이다. 다른 하나는 남쪽에 있는데 서쪽에 앉았고 靈山殿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마곡사지 집필위원회, 『麻谷寺誌』(공주: 공주시·마곡사·(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p.144.



도 1. 지장보살삼존상, 17세기, 공주 마곡사 영부전



도 2. 목조지장보살좌상, 17세기 전반, 높이 112.5cm



도 3. 목조지장보살좌상 왼쪽 팔뚝의 대의 처리



도 4. 목조지장보살좌상 허반신 대의 처리

명부전 내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서 있고(도 1), 벽면을 따라 시왕상과 권속이 배치되어 있다.

1. 목조지장보살좌상

수미단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높이가 112.5cm 되는 중형보살상이다(도 2). 지장보살상은 머리의 聲聞比丘形으로, 머리를 앞으로 약간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다. 방형의 얼굴에 一字의 반쯤 내리뜯은 눈, 뾰족한 코, 그리고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다. 別造된 손은 손목에 끼워 넣었으며,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구부려 사이가 많이 뜨게 맞대고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는 變形右肩偏袒으로,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락이 거드랑이 높이까지 늘어지고 그 뒤로 두 가닥의 옷주름이 잡힌 후, 팔꿈치와 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에서 두툼한 한 가닥의 대의자락이 팔꿈치까지 접혀 있고, 뒤쪽으로 U자형으로 늘어져 있다(도 3).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복부에서 수직으로 한 가닥이 늘어져 끝부분이 하트(♡)형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대의자락이 낮게 펼쳐져 좌우대칭을 이룬다(도 4). 왼쪽 무릎을 덮은 소맷자락은 나뭇잎 모양으로 무릎 바깥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僧脚崎는 복부 위쪽에 끈으로 묶어 상단이 세 겹의 넓적한 연판형으로 처리되었다. 보살상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두 가닥의 옷주름이 수직으로 내려와 끝자락이 Y자형을 이루고 있다.

2. 석조무독귀왕과 도명존자 및 석조시왕상

지장보살좌상 좌우에는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있다. 두 존상은 재질이 돌이고, 지장보살과 크기나 형태 등이 많이 차이가 있다.

무독귀왕은 의례에 착용하는 금관 조복을 입고, 양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다(도 5). 머리에는 五梁冠을 쓰고, 전신에 포를 걸치고 있다. 합장한 손으로 인해 衣帶는 가려져 있다. 늘어진 소맷자락 사이로 內衣 두 겹이 보이고, 명치에서 신발까지 廣多繪와 細條帶가 일체형으로 조각되어 있다. 도명존자는 승려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長衫과 袈裟를 걸친 채 합장을 한 모습이다(도 6). 늘어진 소맷자락 사이로 세 겹의 내의를 입은 것이



도 5. 석조무독귀왕, 1677년,
높이 110cm, 마곡사 명부전



도 6. 석조도명존자, 1677년,
높이 109cm, 마곡사 명부전



도 7. 석조시왕상, 1677년, 높이 103~119cm, 마곡사 명부전(필자와 이흥식 촬영)

보이고, 왼쪽 어깨에는 가사를 연결해주는 원형의 가사 고리가 있다.

시왕상은 지장보살상 왼쪽에 홀수 왕인 진광대왕, 송제대왕, 염라대왕, 태산대왕, 도시대왕이, 오른쪽에 짝수 왕인 초강대왕, 오관대왕, 변성대왕, 평등대왕, 오도전륜대왕이 모두 의자에 앉아 있다(도 7). 대부분 시왕상은 상체를 곧게 세워 정면을 바라보고, 양손에笏을 쥐거나 경전 등을 들고 있다. 시왕상은 지장보살상과 달리 코가 두껍고, 무독귀왕과 같은 형태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관모 또한 오랑관을 착용하고 있으나, 梁이 없는 관모를 쓴 대왕들도 있다. 대부분 시왕상은 관모 정면에 寶相華文이 새겨져 있지만, 오관대왕과 오도전륜대왕은 관모 정면에 牡丹文이 조각되어 있다.

시왕상은 전신에 포를 입고, 그 위에 입은 치마[裳]를 가슴부터 무릎까지 덮고 있다. 그 위에 광다회와 세조대가 명치에서 곧게 내려온다. 일부 사찰에 봉안된 시왕상은 의대와 광다회를 분리해서 제작하지만, 마곡사 시왕상은 의대와 광다회를 일체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마곡사 시왕상은 고성 옥천사와 청도 덕사 등과 같이 대왕과 의자가 하나의 돌에 조각된 일체형이다.⁷



도 8. 권속(귀왕, 판관, 사자, 인왕), 1677년, 높이 91~113cm, 마곡사 명부전(필자와 이흥식 촬영)

- 7 조각승 승호가 만든 시왕상 중에 의자와 일체형으로 조성한 예는 청도 덕사 명부전 시왕상 밖에 없다. 조태진,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 작 시왕상 연구」, 『불교미술사학』12(2011), pp.171-200. 조각승 승호의 조상 활동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길웅, 「조각승 勝浩가 제작한 불상」, 『문화사학』27(2007), pp.881-894; 최선일,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 연구」, 『선문화연구』8(2010), pp.83-119; 김희경, 「17세기 후반 영남 조각승 승호(勝湖) 작 나한상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1(2012), pp.87-118; 송은석, 「조선 후기 佛石製 불상과 조각승 勝湖·敬玉」, 『국학연구』34(2017),

시왕상은 가슴과 어깨, 의대와 광다회에도 문양이 거의 없는데, 이는 새로 개채하면서 세부 문양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권속

명부전 하부 권속은 귀왕상 2구, 판관상 2구, 사자상 2구, 인왕상 2구, 동자상이 11구가 전하고 있다(도 8~9). 이들 하부 권속들은 입상으로 자세가 다양하다. 귀왕은 시왕상과 같이 양관을 쓰고, 판관은 복두를 쓰고 있다. 사자상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두루마리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있다.

인왕상은 상의를 탈의하고 상반신에는 天衣만 두르고 있다. 인왕상은 크게 부릅뜬 눈, 두꺼운 미간의 주름, 그리고 짙 다문 입 등을 통해 명부전 존상들 중 가장 위압적이다. 동자상은 양손을 소매 속에 넣은 모습으로 조성된 것과 연잎이나 두루마리와 같은 지물을 들고 있거나 사자, 호랑이, 봉황, 거북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도 9. 석조동자상, 1677년, 높이 45~62cm, 마곡사 명부전

pp.137~191; 고승희,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을 통해 본 17세기 조각승 '승호(勝湖)' 연구」, 『강좌미술사』51(2018), pp.199~214.

Ⅲ. 마곡사 명부전 불상 관련 문헌 검토

명부전 불상과 관련된 문헌 기록은 명부전 창건기와 시왕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밖에 없다. 우선 명부전 건립에 따른 이운 과정을 검토한 후, 석조시왕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검토해보겠다.

1. 「忠淸南道公州郡泰華山麻谷寺冥府殿創建記」⁸

명부전의 건립 과정은 1939년 4월에 작성된 「충청남도 공주군 태화산 마곡사 명부전 창건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是歲春子自象王山來寓於華山蘭若有滿湖禪師○予言曰惟我麻谷寺
即湖西大伽藍而創既久矣百美俱興然惟所欠者無冥府殿也我等常以是爲慊
焉幸於再昨秋即昭和十一年八月日有禮山邑居朴氏枬那者因不佞而發大願即
出家貲三千二十圓而喜捨之又有遠近隨喜枬越等各自隨分喜捨於是山內僉德欣
然同心遂於昭和十一年八月十六日名工始役越明年春三月日○工而同時又重建修禪
社又繼而丹艘冥府殿而地藏尊像一位昭和十二年三月十五日自青陽郡赤谷面定慧
寺移安于新殿內十王各部頌畫自論山郡豆磨面淨土寺昭和十三年四月五日移安道
明尊者像一位無毒鬼王像一位十王像十位兩判官像以下各位全部昭和十四年四月
二十九日自全羅北道任實郡館村面新興寺移安然則前後跨四個年間而殿宇不
畢矣如次徵蹟豈可泯滅耶願和尚記之予聞其言而壯其功因而拜審則其殿宇不甚
宏桀而其面勢之端嚴間架之周密額極其制人皆曰種福之良田結緣之適所矣予
以拙於文辭者故但記滿湖禪師言如右又當時緣化人與山內僉德及施主
各位名卿且其喜捨金額詳記列左揭以爲供他日參考之資讚曰殿後之青山不老
殿下之流水不竭新建重建之功德共留於山水之間而不老不竭也
佛紀二九六五年昭和十四年四月日 象王山人安香德

충청남도 공주군 태화산 마곡사 명부전 창건기⁹

병자년(1936)에 상왕산에서 온 만호선사가 태화산 난야(마곡사)에 살고 있었다. 나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해볼 때 마곡사는 호서 대가람이며 창건된 지 오래 되었다. 백 가지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지만, 오직 명부전이 없는 것이 흠”이라고 하였다. 이에 “우리들도 항상 이것을 겸연스럽게 생각합니다.”라

8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 (2004), pp.112-113[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1989) 재인용]; 문화재청,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대광보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상)』(2012), p.68.

9 현판 번역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도해 스님이 하였다.

고 답하였다.

다행히 재작년 가을인 소화 11년(1936) 8월 일에 예산읍에 거주하는 박씨 단월이 진실로 큰 원력을 받해서 재물 3천 20원을 희사하였다. 또 원근에서 쉬이 동참한 단월들이 각자 형편에 따라 희사하였고, 산중에 겸덕하게 사는 스님들도 기쁘게 한마음으로 희사하였다.

드디어 소화 11년 8월 16일에 뛰어난 장인들이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해 봄 3월에 준공하고 동시에 또 수선사(선원)를 중건하면서 명부전을 단청하였다. 또 계속해서 명부전의 지장존상 1위를 소화 12년(1937) 3월 15일에 청양군 적곡면 정혜사에서 이운하고, 시왕 각부의 탕화를 새로 지은 명부전에 봉안하였는데 논산군 두마면 정토사에서 소화 13년(1938) 4월 5일에 옮겨왔으며, 도명존자상 1위, 무독귀왕상 1위, 시왕상 10위, 두 분의 판관상 이하 각 위 전부를 소화 14년(1939) 4월 29일에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신흥사에서 이운하여 봉안하였다.

그러한 전후의 일을 4년이 넘지 않은 사이에 명부전의 일을 바야흐로 마쳤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업적을 어찌 사라지게 하겠는가. 원전대 화상께서 그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 달라는 말을 듣고 훌륭한 인연 공덕에 예배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명부전은 크고 훌륭하고, 그 모양도 단정하고 엄숙하며, 짜임새도 주도면밀하였다. 보시금의 지극한 마름질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훌륭한 복전을 심었으며 적재적소에 인연을 맺었다.”고 하였다. 나는 본래 문장과 말이 서툰 사람이지만 단지 만호선사의 말씀을 오른쪽에 기록할 뿐이다. 또 당시의 인연들과 산중의 스님들이 시주하고 화주한 각 위의 방명, 또 희사 금액을 왼쪽에 자세히 기록한다. 훗날에도 공양한 것을 알고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찬양하기를

명부전 이후에는 청산도 늪지 말고

명부전 아래 흐르는 물은 마르지 말라.

새로 짓고 중간한 공덕은

저 산수 사이에서 늪지도 말고 마르지도 말고 함께 하여라.

불기 2965년 소화 14년 4월 일 상왕산인 안향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곡사는 조선시대 명부전을 세운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충청남도 공주군 태화산 마곡사 명부전 창건기(현판)』을 보면 충남 서산 상왕산에 거주하다 마곡사 원주가 된 만호스님이 오랜 역사를 가진 호서 대가람인 마곡사에 명부전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자,¹⁰ 사중의 생각을 호응한 예산읍에 사는 박씨 집안에서 많은 후원금을 내어 명부전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명부전은 1936년 8월 16일에 착공하여 1937년에 3월 15일에 공사가 완료되고, 내부에 봉안할 불

10 당시 滿湖스님은 院主였다. 스님의 법명은 在鶴이다.

상과 불화는 다른 사찰에서 이운하였다. 예를 들어 지장보살은 1937년 3월 15일에 충남 청양 적곡면 정혜사에서, 시왕도는 1938년 4월 5일에 충남 논산군 두마면 정토사에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시왕상, 판관은 1939년 4월 29일에 전북 임실 관촌면 신흥사에서 옮겨온 것이다. 당시 주지는 월면만공이고, 명부전 건립에 대시주자 李萬化性(1875년생)과 朴慈永(1932년생)이 3,020원, 朴氏(1890년생), 李萬化性(1871년생), 卞氏(1886년생), 金香史(1872년생), 柳淸淨心(1896년생), 金淸淨性(池仁英), 廉淨指月이 100원, 비구니 權妙仁 60원, 비구니 金貞花와 錦岩俊鎬가 50원을 시주하였다. 명부전 건립에 대시주자로 참여한 인물은 금암준호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며, 이들이 모은 시주금은 총 3,980원으로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대략 4억 7천만 원 정도이다.¹¹ 시주금의 75%를 차지하는 이만화성은 박씨 집안의 안주인으로, 1934년에 마곡사 청련암 인법당 불사에도 참여한 예산읍에 거주했던 신도이다.¹² 당시 대목은 完吉錫熙로 그와 관련된 활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920년 전후에 작성된 청양 정혜사 재산대장(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본)에 불교조각은 나무로 만든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中庵)과 돌로 만든 석가여래, 미륵보살, 갈라보살, 나한상(16구), 감재와 직부사자, 관세음보살(南庵)이 봉안되어 있다.¹³ 따라서 1920년대 정혜사에는 명부전과 시왕상 등이 없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모시던 지장보살을 1937년에 마곡사 명부전 건립과 동시에 이운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2. 조성발원문

명부전 시왕상 가운데 제9 도시대왕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 조성발원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4년에 발간된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자료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康熙十六年四月日造像施主願之

第九王施主文武仁兩主

11 1936년 1원은 현재 12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당시 의사 월급이 100원(현재 1,200만원) 정도였다.

12 「忠淸南道公州郡泰華山麻谷寺冥府殿創建記」에 “金參千貳拾圓也 淸信女乙亥生 李萬化性”과 「佛事位号 및 施化芳錄揭記」에 “金五円也 李萬化性”이라 적혀 있다. 만공스님이 예산 수덕사에 거주하였던 인연으로 마곡사 불사에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

1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문서(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를 참조하였다.

14 당시 정혜사 주지는 俞重穆 스님으로, 1937년에 정혜사 석굴암 山神圖 조성 시 住持로 적혀 있다. “奉安于七甲山定慧寺石窟, 扶餘郡恩山面恩山里居, 乾命庚寅生文向玉, 坤命壬寅生田氏 … 山中秩 時住持俞重穆, 全監院林泰成, 中庵 吳法弘, 南庵 朴根夏, 畫員 李定淵, 世尊降生二千九百五十九年, 壬申十月二日奉安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2004), p.180. 「조선총독부 관보」1581호(1932년 4월 16일 12면), 1935호(1933년 6월 23일 6면), 3197호(1937년 9월 9일 8면)에 주지 소임을 맡은 것이 나온다(gb.nl.go.kr/Default.aspx).

證明 仅○比丘
 持殿 德和比丘
 畫員 性日比丘 坦○比丘
 元學比丘 ○淳比丘
 ○○比丘 ○丞比丘
 森○比丘 法湊比丘
 懷衍比丘
 供養 尙帝
 學靈比丘
 化主 德林比丘
 別座 太○
 比丘 一單
 並端○

이 조성발원문을 근거로 시왕상 등은 1677년(강희 16) 4월에 畫員 性日, 元學, ○○, 森○, 懷衍, 坦○, ○淳, 法湊이 제작하였다. 화주는 德林, 공양주는 尙帝와 學靈 등이다.¹⁵ 持殿으로 참여한 德和는 1663년에 구례 화엄사 碧巖國一都大禪師碑 건립에도 참여하였다.

IV. 마곡사 명부전 불상의 조성 시기와 조각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곡사 명부전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상, 석조무독귀왕과 도명존자, 석조시왕상, 권속 등은 정혜사와 신흥사에서 각각 이운된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석조시왕상과 같이 1677년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¹⁶ 같은 명부전에 함께 봉안되어 모든 상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조각승이 만든 작품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식 비교를 통해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제작 연대를 세밀하게 추정해보고자 한다.

15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기존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연화질 중에 '尙帝'는 조선 후기 스님 법명에 帝를 쓴 경우가 없어 탈조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글자일 가능성이 높다.

16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2004), pp.78-83, p.100; 문명대 외, 『조선시대 기록문화재 자료집 I』(서울: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2009), p.252.

		
목조지장보살좌상, 공주 마곡사(청양 정혜사 제작)	수연,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19년, 서천 봉서사	수연, 목조석가여래좌상, 1623년, 강화 전등사
		
수연, 목조지장보살좌상, 1634년, 익산 송림사(옥구 보천사 제작)	수연, 목조지장보살좌상, 1636년, 강화 전등사	수연, 목조석가여래좌상, 1639년, 예산 수덕사(남원 풍국사 제작)

도 10. 마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수연 제작 기년명 불상

	
목조지장보살좌상, 공주 마곡사(청양 정혜사 제작)	수연,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19년, 서천 봉서사
	
수연, 목조석가여래좌상, 1623년, 강화 전등사	수연, 목조지장보살좌상, 1634년, 익산 송림사(옥구 보천사 제작)
	
수연, 목조지장보살좌상, 1636년, 강화 전등사	수연, 목조석가여래좌상, 1639년, 예산 수덕사(남원 풍국사 제작)

도 11. 마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수연 제작 기년명 불상의 하반신 대의 처리

1.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선 후기 불상 가운데 발원문과 사적기를 통해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은 350여 점에 이른다. 마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조성발원문이 남아있지 않지만, 불상의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수연이 만든 불상과 유사성이 많다(도 10).

수연이 제작한 불상은 얼굴의 양미간이 좁으며, 耳目口鼻가 오밀조밀하여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신체 비례는 어깨가 넓고, 무릎 높이가 낮고 폭이 넓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수연이 제작한 불상은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늘어져 부챗살처럼 펼쳐진 모양, 편삼 위에 대각선으로 늘어진 모양, 물방울처럼 길게 흘러내린 모양이 있다(도 11). 이 가운데 마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같이 부챗살이 몇 가닥으로 펼쳐진 형태는 1623년 강화 전등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복부에서 가운데로 길게 늘어진 두 번째 옷주름이 가장 상단에 펼쳐져 끝부분이 ♡형을 이루고, 좌우로 옷자락이 낮게 펼쳐져 있고 좌우 대칭을 이룬다. 이와 같은 형태는 1619년 서천 봉서사 목조삼존불좌상이나 1634년 익산 승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1639년 예산 수덕사 불상과 같고, 왼쪽 무릎 위에 펼쳐진 소매자락도 1623년 강화 전등사 불상과 같이 사선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끝이 날카롭게 처리되어 있다.¹⁷ 이러한 불상의 표현은 동시대에 활동한 현진이나 무염 등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과 형태에 차이가 난다.



도 12. 승호, 석조시왕상, 1678년, 높이 124.5~135cm, 청도 덕사

17 최선일,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守衍」, 『인천학연구』18(2013), pp.207~244.

2. 석조시왕상

마곡사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시왕상, 판관은 1939년 4월 29일에 전북 임실 관촌면 신흥사에서 옮겨온 것이다. 제9 도시대왕 발원문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통해 지장보살좌상을 제외한 명부전 존상들은 1677년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후반, 특히 1670년부터 1690년까지 명부전 불상 조성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로, 색난, 단웅, 승호, 수일, 금문, 지현, 충옥 등 여러 조각승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명부전 불상 조성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곡사 도시대왕 발원문에 언급된 수화승 성일 역시 이러한 17세기 후반 불교조각사의 흐름 속에서 활동한 조각승으로 보인다.

성일에 대한 활동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을 통해 그는 주로 한반도 영서와 호남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들은 주로 목재로 존상을 조성한 반면, 성일은 특이하게 석재로 존상을 제작하였다.

석조불상은 주로 경상도 지역 사찰에 승호가 조성한 사례가 많이 남아있다. 마곡사 시왕상은 승호의 가장 이른 기년명 불상들인 1678년 청도 덕사 존상들과 양식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시왕상들은 1670년대 비슷한 시기에 조성하였지만, 복식의 표현과 옷주름 처리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도 12). 승호가 조성한 시왕상은 명치 부근을 두른 띠 형태(세조대)가 명확하게 조각되었지만, 마곡사 시왕상은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옷주름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점을 있는데, 덕사 시왕상들은 유사한 형태의 주름을 주로 좌우대칭이 되는 방식으로 조각한 반면, 마곡사 시왕상은 이러한 ‘패턴’ 형식의 옷주름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옷주름 끝처리 방식도 성일이 승호보다 조각을 깊게 하고, 의습선이 훨씬 날카롭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시왕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조각승 성일이 시왕상 제작에서 승호와 다른 조형 감각을 지닌 조각승이란 것을 말한다.¹⁸

3. 조각승 性日

마곡사 명부전 석조시왕상을 수화승으로 제작한 성일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표 1). 지금까지 조각승 성일이 불상 조성 불사에 참여한 기록은 5건이 조사되었다.¹⁹ 이는 중수 불사 1건과 조성 불사 4건으로 나눌 수 있고, 수화승으로 불상을 만든 것은 아직까지 마곡사 명부전 불상이 유일하다. 성일은 생몰년이라든가, 그가 僧侶匠人이 된 배경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활동 시기와 내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성일은 1650년에 안심사 약사암 소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남양주 흥국사 봉안)을 瑞熙, 尙敏,

18 17세기 후반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을 만든 조각승 경옥이 있다. 최선일·조태건,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과 조각승」, 『선학원연구』21(2019), pp.373-407.

19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조소』(서울: 양사재, 2007), p.80.

표 1. 성일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

연대	지역	불안 사찰	작업 내용	조각승	비고
1650	전북 완주	안심사 약사암	소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중수	畫員 瑞熙 尙敏 祖能 性日	남양주 흥국사 봉안 중수발원문과 묵서
1677	충남 공주	마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성	畫員 性日 元學 □□ 森□ 懷衍 坦□ □淳 □丞 法漢 懷衍	청양 정혜사 봉안 造成發願文
1678	전남 강진	백련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畫員 敬琳 坦旭 道敏 處元 三眼 性日 萬江	목포 달청사 봉안 造成發願文
1680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 조성	畫員 雲惠 敬琳 坦昂 道敏 三眼 楚明 性日 日	造成發願文
1688	전북 완주	대원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조성	康熙二十七年戊辰七月晦日十王造像成功… 畫員 道峯 智玄 懷映 戒初 惠雲 震悅 法眼 性日	造成發願文 ※同名異人 가능성도 있음

祖能和 중수할 때 맨 마지막에 이름이 적혀 있다.²⁰ 안심사 약사암 소조불상 중수는 성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이 중수 불사에 수화승으로 참여한 서희의 활동 내용은 다른 문헌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부화승 상민은 1642년에 경북 고령 반룡사 대적광전 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慧熙가 조성할 때도 부화승으로 참여하고,²¹ 1650년 이전에 혜희와 공주 갑사 보장각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제작하였으며,²² 1655년에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삼존상도 혜희, 智修, 天允 등과 조성할 때 네 번째 언급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²³ 이후 1661년에 전남 강진 무위사 지장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등을 懷鑑, 道能 등과 조성하였다.²⁴ 또한 조각승 조능은 1640년 전북 옥구 불명사 불상(익산 승림사 봉안)을 大畫員 法靈, 哲學, 慧熙 등과 조성하고,²⁵ 1642년에 고령 반룡사 불상 제작과 1650년에 안심사 약사암 불상을 중수한 후, 1655년에 수화승으로 김제 봉서사 향로전 목조관음보살좌상과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하였다.²⁶ 따라서 1650년에 보조화승으로 안심사 약사암 불상을 중수할 때 주도한 스님들은 혜희 계보에 속한 조각승이다. 현재 마곡사 명부전 석조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및 시왕상 등을 함께 제작한 다른 조각승들은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금까지 밝혀진 조각승 성일의 활동 시기는 1650년부터 1688년까지 약 38년 동안이지만, 수화승으로 만든 불상이 하나 밖에 조사되지 않아 명확한 사승 관계를 밝힐 수 없지만, 惠熙(慧熙,

20 제10 半託迦尊者像 바닥 묵서는 “三重修緣化」畫員瑞熙尙敏祖能性日大化士海清順治七年庚寅年六月二十九日始起, 重修爲多”이다(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소장 발원문 사진 참조).

21 大畫員 慧熙 尙敏 戒學 法均 祖能 智和, 최선일 편,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Ⅰ』(파주: 양사재, 2018a), pp.174-177.

22 畫員山人 惠熙 比丘 天允 尙敏 善雪, 최선일 편, 위의 책(2018a), pp.234-235.

23 畫員 惠熙 智修 天允 尙敏 海修… 최선일 편,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Ⅱ』(파주: 양사재, 2018b), pp.72-74.

24 首畫員主 懷鑑 道能 賞敏 尙林 性學 神彦 能仁 尙俊 天性 印先 依玄 性楚 少者 愛生, 최선일 편, 앞의 책(2018b), pp.130-133.

25 최선일 편, 위의 책(2018a), pp.160-161.

26 최선일, 앞의 책(2007), pp.152-153.

-1640~1677-) → 尙敏(賞敏, -1642~1661-), 祖能(-1640~1657-) → 性日(-1650~1688-)로 이어지거나 雲惠(雲慧, -1649~1680-) → 敬林(敬琳, -1665~1680-), 三眼(-1678~1683-) → 性日(-1650~1688-)로 사승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각승 성일이 혜희 계보인지 운혜 계보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²⁷ 두 조각승 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성일이 제작한 불상이 더 조사되면 조각승의 계보와 양식적인 특징 등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공주 마곡사 명부전 불상에 관한 문헌 검토와 양식적인 접근을 통하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의 제작 시기와 작가를 살펴보았다.

명부전은 1936년 8월에 착공하여 1937년에 3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내부에 봉안할 불상인 지장보살은 1937년 3월 15일에 청양 적곡면 정혜사에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시왕상, 판관은 1939년 4월 29일에 임실 관촌면 신흥사에서 이운하였고, 시왕도는 논산 두마면 정토사에서 옮겨왔다. 그러나 석조시왕상 조성 연대인 1677년에 목조지장보살좌상도 함께 제작된 것으로 그동안 잘못 알려져 있어서 본 논문에서 이를 재검토하였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인상, 신체 비례, 착의법 등을 검토해 보면, 17세기 후반에는 제작되기 어려운 불상이다. 따라서 목조지장보살좌상은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의 두 번째 주름이 수직으로 늘어지고 끝자락이 하트 모양으로 마무리된 점과 그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낮게 펼쳐진 처리는 1619년 서천 봉서사 불상이나 1634년 익산 승림사 불상(육구 보천사 조성)과 유사하여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수연이나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1620~30년대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조시왕상과 권속 등은 1677년에 조각승 성일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것을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성일이 수화승으로 만든 유일한 불상이라는 것과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한 작가들의 활동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어야 스님의 활동과 계보가 명확해질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성일의 불상 제작과 중수에 참여한 활동을 살펴보면, 운혜 계보 또는 혜희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여 두 조각승 집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곡사 시왕상은 호남이나 영서 지역에서 주로 제작되는 흙이나 목조시왕상이 아니라 돌로 제작되었으며, 호남보다 영남에서 유행한 시왕상의 형태나 착의법 등과 유사하여 호남보다는 영남에서 주로 활동한 조각승들의 작품으로 보인다.

27 최선일,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운혜」, 『불교미술사학』2(2004), pp.199-219; 최선일, 「배천 강서사 조성 지장보살과 조각승 영철」, 『선문화연구』13(2012); 송은석, 「17세기 중후반 운혜파의 조상 활동: 운혜와 경림」, 『미술사와 시각문화』9(2010), pp.116-145; 송자민, 「운혜 작 해남 서동사 목조삼세불좌상 연구」, 『강좌 미술사』46(2016), pp.85-107.

앞으로 충남 지역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성 시기와 작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17세기 후반 영남 지역 석조불상과의 비교를 통해 호남에서 제작된 석조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조각승과 활동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원고투고일 2020.9.9. | 심사개시일 2020.10.5. | 게재 확정일 2020.11.18. |

〈참고〉 마곡사 불교조각(조선총독부 관보 1753호 7~8면 寺刹有財産, 1932년 11월 10일)

명칭	개수	품질	형태	크기	비고(마곡사, 필자 작성)
석가여래	1	목제도금	좌상	높이 6척	대웅보전, 높이 191cm
〃	1	〃	〃	높이 2척8촌	영산전
〃	1	〃	〃	높이 2척7촌	공주 마곡사포교당 추정
〃	1	석제도분	〃	높이 1척8촌	응진전, 높이 52.2cm
석가여래	181	〃	〃	높이 2척	영산전
〃	156	〃	〃	높이 1척1촌	영산전
〃	218	〃	〃	높이 8척	영산전
석가여래	1	석제도분	좌상	높이 1척7촌	
아미타불	1	목제도금	〃	높이 6척	대웅보전, 높이 178.5cm
〃	1	〃	〃	높이 2척3촌	
약사여래	1	〃	〃	높이 5척9촌	대웅보전, 높이 176cm
〃	1	〃	〃	높이 2척3촌	
비로자나불	1	목제도금	좌상	높이 6척7촌	대적광전, 높이 193cm
비파시불	1	〃	〃	높이 2척3촌	영산전
시기불	1	〃	〃	높이 2척2촌	영산전
비사부불	1	〃	〃	높이 3척4촌	영산전
구유손불	1	〃	〃	높이 2척5촌	영산전
구나함모니불	1	〃	〃	높이 2척5촌	영산전
가섭존자	1	〃	〃	높이 2척8촌	영산전

참고문헌

【1차 문헌】

『마곡사 재산대장』(조선총독부 관보 1932년 11월 10일)

「泰華山麻谷寺事蹟立案」

「忠淸南道公州郡泰華山麻谷寺冥府殿創建記」

【도록·보고서】

공주대학교 박물관 편, 『공주의 역사와 문화』, 공주: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5.

국립중앙박물관,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 보물 제1260호 공주 마곡사 괘불』, 서울: 주자소, 2019.

국립공주박물관,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서울: 그래픽네트, 2012.

문화재청,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대광보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상)』, 대전: 문화재청, 201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마곡사 실측조사보고서』, 과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마곡사지 집필위원회, 공주시·마곡사·(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泰華山 麻谷寺』, 대전: KDO한국문화기획, 2012.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서울: 2004.

【단행본】

고경 감수/ 송천 등 편저, 『韓國의 佛畵畵集』, 서울: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공주의 맥』, 공주문화원, 1992.

김형우 등, 『전통사찰총서 12-대전·충남의 전통사찰 I』,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1999.

문명대 외, 『조선시대기록문화재 자료집 I』, 서울: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2009.

안귀숙·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회화』, 서울: 양사재, 2008.

지수길, 『한국의 근대와 공주사람들』, 공주: 공주문화원, 1999.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조소』, 서울: 양사재, 2007.

_____,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11.

_____, 『조선후기 조각승 열전』, 파주: 양사재, 2018.

_____,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I』, 파주: 양사재, 2018.

_____,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II』, 파주: 양사재, 2018.

한상길·홍대한, 『태화산 마곡사』, 서울: 활불교문화단, 2012.

【논문】

박언근, 「마곡사의 가람 배경」, 『마곡사실측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송은석, 「17세기 중후반 운해파의 조상 활동 : 운해와 경림」, 『미술사와 시각문화』 9, 2010.

송자민, 「운해 작 해남 서동사 목조삼세불좌상 연구」, 『강좌 미술사』 46, 2016.

조태건,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 작 시왕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12, 2011.

- 최선일,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운해」, 『불교미술사학』 2, 2004.
- _____, 「조선 후기 조각승과 불상양식의 변천」, 『미술사학연구』 261, 2009.
- _____,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호라동과 불상 연구」, 『선문화연구』 8, 2010.
- _____, 「배천 강서사 조성 지장보살과 조각승 영철」, 『선문화연구』 13, 2012.
- _____,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守衍」, 『인천학연구』 18, 2013.
- _____, 조태건,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과 조각승」, 『선학원연구』 21, 2019.
- 허형욱, 「기록과 함께 보는 마곡사의 불교조각」,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 보물 제1260호 공주 마곡사 괘불』, 2019.

【누리집】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문서(<http://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
- 디지털공주문화재전(<http://gongju.grandculture.net>).
- 마곡사 홈페이지(<http://www.magoksa.or.kr>).
- 조선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http://gb.nl.go.kr>).

Buddhist Images in Myeongbujeon at Magoksa Temple in Gongju

Choi Sun-il*

Using stylistic analysis and historical documents, this paper examines the production details of images enshrined in Myeongbujeon (Hall of the Underworld) at Magoksa Temple in Gongju, focusing on the wooden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and the stone Ten Kings of Hell. Inside Myeongbujeon, the wooden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is placed at the center, flanked by standing images of Mudokgiwang and Domyeong-jonja, with images of the Ten Kings and their attendants along the walls. All of these images were transferred to Magoksa Templ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30s. The wooden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came from Jeonghyesa Temple in Cheongyang, the other sculptures came from Sinheungsa Temple in Imsil, and a painting of the Ten Kings came from Jeongtosa Temple in Nonsan.

The wooden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is known to have been produced in 1677, around the same time as the stone sculptures of the Ten Kings. A close analysis of the details of the bodhisattva sculpture—including the facial features, body proportions, and drapery characteristics—strongly suggests that it was produced in the 1620s or 1630s by the monk sculptor Suyeon (who was active in the early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or his disciples. In particular, the rendering of the drapery on the lower half of the body closely resembles Buddhist sculptures produced by Suyeon that are now enshrined at Bongseosa Temple in Seochon (produced in 1619) and at Sungnimsa Temple in Iksan (produced at Bocheonsa Temple in Okgu in 1634).

According to the votive inscription, the stone sculptures of the Ten Kings and their attendants were produced in 1677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onk sculptor Seongil. However, these are the only known Buddhist images produced under Seongil, and no details about other monks involved in the production have ever been found, making it difficult to speculate about their lineage. Historical records do suggest that Seongil worked on other projects to produce or repair sculptures with disciples of the monk sculptors Hyehi or Unhye, indicating amicable relations between the two groups.

*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Appraisal Committe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Unlike most such images in the Honam or Yeongseo regions, the Ten Kings at Magoksa Temple are made from stone, rather than wood or clay. Also, the overall form and the drapery conform to statues of the Ten Kings that were popularly produced in the Yeongnam region. Thus, the images are believed to be the work of monks who were primarily active in Yeongnam, rather than Honam.

In the future, 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wooden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images and stone Ten Kings of Hell images produced in the Chungnam region could illuminate more details about the production of the images at Magoksa Temple, and perhaps shed light on the conditions that led to the production of stone Buddhist sculptures in the Honam area during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Keywords: late Joseon, Magoksa Temple, Myeongbujeon, sculptor monk, Seongil